

음성 가이드 : 만묘지

뒤돌아서 남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언덕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곳이 만묘지의 입구이며, 만묘지는 운젠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사찰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돌기둥에는 사찰이나 숭배하는 산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온천의 산’이라고 적혀있는 ‘운젠산(温泉山)’인데, 현재의 ‘운젠(雲仙)’에 쓰는 한자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934년 국립공원 지정을 받았을 때, 다른 지역 온천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한자를 선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선정한 ‘雲仙(운젠)’이라는 한자는 ‘구름 속 신선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운젠의 산들은 일찍이 단순히 ‘일본산’, ‘일본의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운젠은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 목적지로 접근하는 선원들 눈에 가장 먼저 보인 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운젠은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음을 확신하기 위해 찾은 표식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잠시 정상에서 마을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이곳에서도 마을 전체를 통일되게 보여주는 전통적인 건축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운젠에서 시작된 집들의 영향을 받은 흰색 벽과 붉은 지붕입니다. 대부분은 20세기 초에 지어진 것인데, 이 무렵 상하이나 그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서양인들이 여름 피서지로 운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